

제 27 차 오월 민중제 전야제- 재외동포 영화의 밤

일시: 5월 24일 목요일
장소: Kino Babylon Berlin, Mitte:
주소: Rosa-Luxemburg-Str.30, 10178 Berlin
전화: 030-2425 969
영화제 문의: 유정숙 (yoo.jung-sook@freenet.de)

1. 나의 결혼원정기 (상영시각 16:00)



감독 황병국, 120 분, 2005 년, 극영화

“우주…베끼스트가 어디로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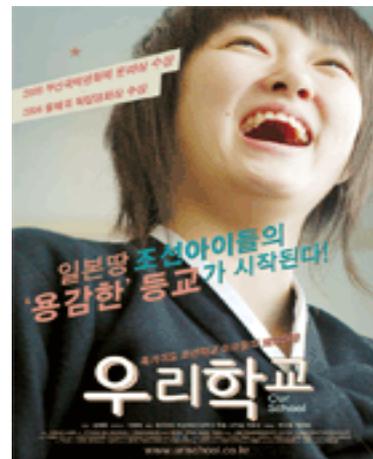
서른여덟이 되도록 여자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썩먹 노총각 흥만택(정재영 분). “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다”는 어머니의 한숨 섞인 꾸밈을 들을 때마다 장가 못간 죄인이 된 심정이다. 만택의 죽마고우 희철(유준상 분)은 땀에는 여자 꽤나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막걸리에 취해 만택과 ‘18 세 순이’를 불러 제끼는 건 마찬가지로 서러운 노총각. 이들은 마을에 시집온 우즈베키스탄 색시를 보고오신 할아버지의 권유로 우즈벡 맞선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. “나 장가간다! 할 수 있다!! 할 수 있다!!!” 현재 한국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과 불법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북한여성의 현실을 이 영화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.

2. 우리학교 (상영시각 18:15)

감독 김명준, 131 분, 2006 년, 다큐멘터리

안녕하세요, 여기는 ‘우리학교’입니다!

해방직후 제일 조선인 1 세들은 일본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자비로 책상과 의자를 사들여 버려진 공장에 터를 잡아 ‘조선학교’ = ‘우리학교’를 세운다. 처음 540 여 개가 넘던 학교는 일본 우익세력의 탄압 속에 이제 80 여 개의 학교만이 남게 되었다. 김명준 감독은 ‘흑가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’의 교원, 학생들과 3년 5 개월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일상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낸다.



3. 코리안 돈키호테, 이희세 (상영시각 20:45)



감독 최현정, 63 분, 2006 년, 다큐멘터리

80년대초, 당시 남한을 휩쓸던 반공 웅변대회의 곱슬머리 스타였던 연출자는 지난 2003년 파리로 유학을 오게된다. 그리고 그 곳에서 주인이 빨갱이라 한국인 손님이 없는 한 한국식당을 발견한다. 그리고 그녀는 이 식당에 얽힌 뒷 얘기를 통해 유럽에서 지난 40여년간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.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부터 수 많은 논쟁을 예견하고 있었다... « 코리안 돈키호테, 이희세 »는 분단 반세기를 훌쩍 뛰어 넘은 조국을 바라보는 두 세대간의 초상이다. 하나의 한국에 익숙한 분단 첫세대와, 두개의 한국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분단 2세대 간의 논쟁, 이것이 영화를 끌어가는 주요 모티브이다.